

2019년 8월 14일, 서귀포시 대륜동(법환동) 법환경로당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

강인순(여, 1941년생, 서귀포시 법환경)

- 서귀포시 법환경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74년째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강정에서 택시기사가 길에서 할머니를 보고 차를 세워 어디 갈 건지 물어보았는데 할머니는 그곳이 집이라고 했다. 나중에 알아보니 그날이 할머니 제삿날이었고 할머니는 귀신으로 제삿집을 찾아왔었다. 운전기사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간 아팠다.

[제보자] 나가 얘기해주. 강정 택시운전수가 강정 마을 벗어낭 오단 보난 길 옆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어떤 할머니가 아장 잇언마씸게. 구덕은 옆에 놓고 혀네. 시간은 막 1시 뒤 갈 때. 구덕 옆에 있고 산에 가만 산 안에 잇이난 옆에 영영 잇이난 택시 불빛이 비치난 그 할머니가 보인 거라.

게난 운전수가 차 세와네

“아이고, 할머니 무사 여기 앉읍디가? 어디 갈 거꽈?”

하난

“이디가 나 집이라.”

그 할머니가, 운전수 그때 깜짝 놀래연게. 시간도 그 시간이고 허난 그 운전수는 서귀포에 왕 막 아판, 택시운전수가 막 아팡 굿도 허고 허는디 그 말 소문이 난 거라.

경허난 그 할머니네 산을 이제 알앙 보난 우리 법환리 아이가 시집간 집이 난. 게난 그날 밤 그 할머니 제사라낫덴. 제사 먹으레 왓당 이거 나 집이라 한 것이 할머니 이녁 산에 앉아 잇인 거.

나도 들었주게. 느네 할머니가 분명하넨 허난 그날 제사랏우덴. 여러 사람 잇는 차부에서 그 말 들은 적 잇우다게.

• 핵심어: 할머니, 운전수(운전기사), 구덕(바구니), 제사, 법환리, 산